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文字異同 研究*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Letters Appeared in the
Wu gou jing guang da tuo luo ni jing

柳 富 鉉 (Boo-Hyun Yoo)**

〈目 次〉

- | | |
|--------------------|--------------------|
| I. 緒言 | III. 現存本에 나타난 文字異同 |
| II.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現存本 | IV. 結言 |

초 록

본고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現存本 사이에서 형성된 문자이동의 유형을 고찰하여, 한국의 경주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문자이동 상태를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원문은 敦煌寫經이 現存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原文 상태이며, 이것은 房山石經·趙城藏·高麗藏에 와서 한번 변화되었고, 다시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資福藏·磧砂藏·永樂南藏·徑山藏·清藏에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문자이동 상태는 資福藏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저본과 계통은 資福藏의 저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제어: 무후정광대다라니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 pattern of letter movement that is constituted between the original of *Wu gou jing guang dai tuo luo ni jing* and the existence it saw and a letter mobile state of *Wu gou jing guang dai tuo luo ni jing* that is discovered in Seokga-pagoda at Kyungju in Korea.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the original of *Wu gou jing guang dai tuo luo ni jing* was identified that Dunhuang sakyung is the earliest original among the existence it saw and it was changed once at Fang shan seokjung, Zhao cheng jing and koryeojang and was largely changed at *Wu gou jing guang dai tuo luo ni jing*, Zi fu zang, Qi sha zang, Yong le nan zang, Jing shan zang and Qing zang that was discovered in Seokga-pagoda. The bottom book and genealogy of *Wu gou jing guang dai tuo luo ni jing* were presumed that it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bottom book Zi fu zang because a letter mobile state of *Wu gou jing guang dai tuo luo ni jing* that was discovered in Seokga-pagoda was exposed without discrimination.

Key Words: *Wu-gou-jing-guang-da-tuo-luo-ni-jing*

* 이 論文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2-041-A00179)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副教授(yoonih@daejin.ac.kr)
• 접수일 : 2003. 8. 22 • 최초심사일 : 2003. 8. 24 • 최종심사일 : 2003. 8. 25

I. 緒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701年 彌陀山에 의해 漢譯된 이후 寫本과 刊本으로 그리고 大藏經에 編入되어 傳來되었다. 그 중에서 770년경에 간행된 日本의 ‘百萬塔陀羅尼’는 연대가 분명한 세계에서 가장 이른 木板印刷物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한편 한국에서는 1966년 慶州의 佛國寺 釋迦塔에서 목판본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無垢’로 약칭함)이 발견되었고, 이후 그 刊年과 刊行地의 추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751년경 신라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이 定說로 수용되었다.¹⁾ 그러나 최근에는 704년 中國의 洛陽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²⁾과 706년 이전 新羅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³⁾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종래의 주장은 주로 동양인쇄사적인 측면과 경주불국사 석가탑의 건립시기, [無垢]의 材質, [無垢]에 보이는 武周新字, 書體 등의 관점에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러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학계에 지대한 관심과 논란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原文과 現存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나의 문헌이 처음으로 성립된 이후 수없이 轉寫되거나 重刊되는 과정에서 형태와 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마련이다. 특히 그 원문은 많은 변화 즉 文字異同을 겪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 원문의 문자이동은 전사 또는 중간의 형태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類型을 형성하기도 한다.⁴⁾ 이러한 문자이동의 유형은 어떤 문헌에 있어서 내용의 傳承關係 즉 원문의 變化關係와 系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현존본 사이에서 형성된 문자이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현존본에 나타난 문자이동의 상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현존본을 조사하여 對校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존본의 대교를 통해 구명된 문자이동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無垢]를 비롯한 현존본에서 나타나는 문자이동의 상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원문의 변화추이와 계통 및 [無垢]의 저본과 계통 관계를 추정해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無垢]의 刊年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1)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1990. p.35.

2) 潘吉星, “韓國新發現의印本陀羅尼經與中國武周時的雕版印刷物”, 《中國印刷史學術研討會文集》(印刷工業出版社, 1996), p. 192.

3)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第14輯(書誌學會, 1997), p. 73.

4) 柳富鉉, “童蒙先習 異本の 文字異同 研究”, 《書誌學研究》第15輯(書誌學會, 1998), p. 84.

II.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現存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701년에 한역된 이래로 單卷으로서 또는 大藏經에 수록되어 세상에 전래되었다. 우선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現存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66년 韓國의 慶州釋迦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
2. 日本의 百萬塔陀羅尼
3. 1992년 中國의 內蒙古 慶州白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
4. 敦煌寫本
5. 大藏經에 編入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다음으로 이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966년 韓國의 慶州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韓國에서 석가탑이 건립된 751년頃の 刊本으로 추정된 것이다. 모두 12張으로 이루어졌는데, 第1張의 11行까지가 결락되었고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훼손된 상태이다.

2. “日本의 百萬塔陀羅尼”는 770년頃に 刊行된 것으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수록된 6個의 陀羅尼 가운데 根本·相輪·自心印·六度陀羅尼 등 4個의 다라니를 말한다.

3. “1992년 中國의 內蒙古 慶州白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는 遼 重熙 18年(1049)에 만들어진 銀鑿金版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이와 함께 간행된 木版本 經卷이다. 銀鑿金版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는 맨 앞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란 卷首題가 새겨있고, 계속해서 6개의 呪文인 根本陀羅尼·相輪樑陀羅尼·修造佛塔陀羅尼·自心印陀羅尼·大功德聚陀羅尼·六度陀羅尼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根本陀羅尼와 相輪樑陀羅尼 사이에 80餘字, 大功德聚陀羅尼와 六度陀羅尼 사이에는 80餘字의 經文이 들어 있다. 또한 末尾에는 法舍利 眞言 43字와 ‘重熙十八年’의 寫記가 있는 發願文⁵⁾이 실려 있다. 그리고 목판본 經卷에는 根本陀羅尼·相輪樑陀羅尼·修造佛塔陀羅尼·自心印陀羅尼가 수록되어 있다.

4. “敦煌寫本”은 敦煌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寫本으로서 『敦煌寶藏』⁶⁾에 아래와 같은 상태로 8種이 영인·수록되어 있다.

- 1) 北7384號는 [無垢]를 기준으로 第1張의 8行까지가 훼손된 상태이다.
- 2) 北7379號는 [無垢]를 기준으로 第9張 21行 以後부터 끝까지 缺落된 상태이다.
- 3) 北7380號는 [無垢]를 기준으로 第3張 11行 以後부터 끝까지 缺落된 상태이다.
- 4) 北7381號는 自心印다라니만이 7번 書寫된 것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5) “皇太后皇帝皇后萬歲 親王公主千秋 官班恒居祿師僧父母施主檀那 承此福衆□嚳利樂 重熙十八年孟秋月 上京善女等記”

6) 黃永武 編, 『敦煌寶藏』第105·106冊. 新門豐出版公司, 198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

- 5) 北7382號는 自心印다라니만이 11번 書寫된 것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6) 北7385號는 修造佛塔다라니만이 92번 정도 書寫된 것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7) 伯3916號는 내용이 완전한 상태이다.
- 8) 斯1634號는 내용이 완전한 상태이다.

이들 敦煌寫本은 필자가 대조해본 바, 문자의 이동 면에서 전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을 통칭해서 [敦煌]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5. “大藏經에 수록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확인가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8種이 現存하고 있다.

- 1) 趙城金藏 (1148-1173)⁷⁾ (以下 [趙城]으로 略稱함)
- 2) 房山石經 (遼代) (以下 [房山]으로 略稱함)
- 3) 高麗藏 (1236-1251) (以下 [高麗]로 略稱함)
- 4) 資福藏 (1239-?) (以下 [資福]으로 略稱함)
- 5) 磧砂藏 (1231-1322) (以下 [磧砂]로 略稱함)
- 6) 永樂南藏 (1372-1403) (以下 [永南]으로 略稱함)
- 7) 徑山藏 (1231-1322) (以下 [徑山]으로 略稱함)
- 8) 清藏 (1735-1738) (以下 [清藏]으로 略稱함)

Ⅲ. 現存本에 나타난 文字異同

앞에서 살펴본 現存本 가운데 [趙城]·[房山]·[高麗]·[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 등에 수록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대해서는 이미『中華大藏經』⁸⁾에서 [趙城]을 저본으로 삼고 他本과 대교하여 모두 35個項의 校勘記를 첨부해 놓았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35個項의 校勘記를 토대로 해서 [無垢]와 [敦煌]을 합한 새로운 對校表를 만들면 附錄의 <表 1> “文字異同 對校表 1”과 같다.¹⁰⁾

7) 이들 大藏經의 刊刻期間에 대해서는 다음의 論文을 參考했다.
張秀民, 『中國印刷史』. 上海人民出版社, 1989. pp. 152 - 486.
肖東發, “漢文大藏經의 刻印及雕版印刷術的發展”, 《北京大學百年國學文粹》- 語言文獻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 p. 628.

8) 『中華大藏經』은 中國의 中華書局에서 1984년부터 1995년까지 年次的으로 刊行된 것이다. 이 大藏經은 基本的으로는『趙城金藏』을 底本으로 하고, 『趙城金藏』의 缺本과 未入藏된 것은 高麗『新雕大藏經』과 餘他의 大藏經으로 補充한 것으로 總 106冊에 達하는 巨帙의 大藏經이다.

9)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20冊, 1984, pp.485-486.

10) 現存本 가운데 ‘2.日本의 百萬塔陀羅尼’와 ‘3.1992년 中國의 內蒙古 慶州白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中華大藏經』에서 校勘해 놓은 35個項의 文字異同에 該當되는 原文이 대부분 없는 呪文爲 主의 經卷이기 때문에 本 對校表에는 제외시켰다.

〈表 1〉“文字異同 對校表 1”

類型		J	J	J	A	B	J
項次	1	2	3	4	5	6	7
面 行 字	77上 2 譯者	77上 6 12	77上 8 4	77上 19 9	77中 7 5	77下 3 6	77下 4 11-14
敦煌	△	主	慧	惱	病	○	命將欲盡者
房山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	主	意	怖	病	泥	命將盡者
趙城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	主	意	怖	病	泥	命將盡者
高麗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	主	意	怖	病	泥	命將盡者
無垢	△	△	△	△	疾	○	△
資福	大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疾	○	將盡之命
磧砂	大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疾	○	將盡之命
永南	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疾	○	將盡之命
徑山	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王	慧	惱	疾	○	將盡之命
清藏	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疾	○	將盡之命
本文		金剛主* 菩薩	無盡意* 菩薩	憂怖* 之事	乾枯癩疾*	或造小泥* 塔	

〈表 1〉“文字異同 對校表 2”

類型	C	B	B	D	J	A	J	E	F
項次	8	9	10	11	12	13	14	15	16
面 行 字	77下 6 7	77下 10 1-3	77下 20 12	78中 8,9 夾註	78中 8 左4	78中 9 左1	78下 8 4	79中 20 10	79下 6 7
敦煌	尙	向佛白言	普	夾註	月	花	○	○	界
房山	常	白佛言	遍	夾註	月	花	一	○	界
趙城	常	白佛言	遍	夾註	月	花	一	而	界
高麗	尙	白佛言	遍	夾註	月	花	○	○	界
無垢	尙	向佛白言	普	夾註	△	花花	△	○	界
資福	尙	向佛白言	普	夾註	田	華華	○	○	界
磧砂	尙	向佛白言	普	正文	卍	華華	○	○	界
永南	尙	向佛白言	普	正文	卍	華華	○	○	世界
徑山	尙	向佛白言	普	正文	卍	華華	○	○	界
清藏	尙	向佛白言	普	正文	卍	華華	○	○	界
本文	尙* 不聞地獄之聲	合 掌佛* 白言* 世尊	放 大光明普* 照三千大千世	形所 戟謂 形輪 月形 字金 形剛 蓮杵 花形 形蠡 花四 上角 安畫 瓶蓮	形所 戟謂 形輪 *月形 字金 形剛 蓮杵 花形 形蠡	*花四 上角 安畫 瓶蓮	或 禮○* 拜	或 用甄石○* 應先呪滿	生 極樂界*

〈表 1〉“文字異同 對校表 3”

類型	A	A	A	B	A	B	B	A	G	A
項次	17	18	19	20	21		22	23	24	25
面 行 字	80上 4 7	80上 17 11	80上 20 12	80下 13 11	80下		81上 16 10	81中 2 2-4	81中 22 7	81下 5 5,6
					21 8	22 5				
敦煌	羅	莊	說	○	誦	○	○	夾註	其	一切
房山	羅	莊	說	就	誦	誦	河	夾註	其	一切
趙城	羅	莊	說	就	誦	誦	河	夾註	此	一切
高麗	羅	莊	說	就	誦	誦	河	夾註	此	一切
無垢	○	所	以	○	○	○	○	正文	其	○
資福	○	所	以	○	○	○	○	正文	其	○
磧砂	○	莊	說	○	○	○	○	正文	其	○
永南	○	莊	說	○	○	○	○	正文	其	○
徑山	○	莊	說	○	○	○	○	正文	其	○
清藏	○	莊	說	○	○	○	○	正文	其	○
本文	跋陀羅* 補那跋陀	以佛莊嚴而莊嚴之愛樂法	世尊說此一切衆生	便得此呪根本法成就*	若誦* 滿六千遍當得普賢地	若誦* 滿七千遍當得初地	恒河* 沙諸佛	鉢盛* 香* 華* 水* 粳米* 置於壇上	皆至此* 處加持彼塔	聞塔鈴聲消諸一切惡業

〈表 1〉“文字異同 對校表 4”

類型	H	A	I	A	G
項次	26	27	28	29	30
面 行 字	81下 22 4-8	81下 22 13-14	82上 3 5	82上 14 3-5	82上 20 7
敦煌	法而受持者	悉皆	大	所有諸毒不能爲害	○
房山	法而受持者	悉皆	大	所有諸毒不能爲害	○
趙城	法而受持者	悉皆	大	所有諸毒不能爲害	生
高麗	法而受持者	悉皆	大	所有諸毒不能爲害	生
無垢	作已	俱時	大	而於彼人毒不能害	○
資福	作已	俱時	大	而於彼人毒不能害	○
磧砂	法而受持者	俱時	人	而於彼人毒不能害	○
永南	法而受持者	俱時	人	而於彼人毒不能害	○
徑山	法而受持者	俱時	大	而於彼人毒不能害	○
清藏	法而受持者	俱時	大	而於彼人毒不能害	○
本文	若 依 此 法* 而* 受* 持* 者* 六 波 羅 密	六 波 羅 密 悉* 皆* 成 滿 是 則	皆 以 諸 天* 大* 供 養	皆 得 消 除 所* 有* 諸* 毒* 不* 能* 爲* 害*	令 往 來 衆 生* 下 至 鳥 獸

〈表 1〉“文字異同 對校表 5”

類型	G	E	G	F	B
項次	31	32	33	34	35
面 行 字	82上 21 13	82上 22 4	82中 4 4	82中 7 1-2	82中 9 8
敦煌	趣	常	衛	無間	○
房山	趣	常	衛	無間	天
趙城	道	當	護	無間	天
高麗	道	常	護	無間	天
無垢	趣	常	衛	無間	○
資福	趣	常	衛	無間	○
磧砂	趣	常	衛	無間	○
永南	趣	常	衛	無間業	○
徑山	趣	常	衛	無間	○
清藏	趣	常	衛	無間	○
本文	及諸惡道* 生諸天宮	常* 憶宿命至不退轉	應當守護住持擁護*	離五無間*	天* 摩醯首羅及天龍八部

이제 이 대교표에 의거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現存본에 나타난 문자이동과 한국의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문자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11)

11) 筆者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現存本 가운데 그 일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篇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첫째는 위에 나열된 것 가운데 ‘1. 1966년 韓國의 慶州釋迦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 ‘2. 日本의 百萬塔陀羅尼’, ‘4. 敦煌寫本’ 중의 ‘1)北7384號 2)北7379號 3)北7380號 4)北7381號 5)北7382號 6)北7385號’, ‘5. 大藏經에 收錄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중에서 ‘3)高麗藏, 4)資福藏, 7)徑山藏’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文字異同을 中心으로 進行的 研究에서 1966년 韓國의 慶州釋迦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는 770년 日本에서 간행된 百萬塔陀羅尼 이후 開寶藏(971-983)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推定하였다(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研究”『東方學志』第壹

부록의 <表 1> “文字異同 對校表”에 의거하여 현존본에서 나타난 문자이동을 살펴보면 이 문자이동의 원인은 誤脫, 衍文 등의 오류 보다는 대부분 潤文에 기인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자이동은 어느 特定本에서만 보이는 문자이동이 있는 반면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문자이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자이동을 유형별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이 10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유형별로 다시 표로 만들면 부록의 <表 2>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와 같다.

<表 2> “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1”

類型	A	A	A	A	A	A	A	A
項次	5	13	17	21	23	25	27	29
面	77中	78中	80上	80下	81中	81下	81下	82上
行	7	9	4	21	2	5	22	14
字	5	左1	7	8	2-4	5,6	13-14	3-5
敦煌	病	花	羅	誦	夾註	一切	悉皆	所有諸毒不能爲害
房山	病	花	羅	誦	夾註	一切	悉皆	所有諸毒不能爲害
趙城	病	花	羅	誦	夾註	一切	悉皆	所有諸毒不能爲害
高麗	病	花	羅	誦	夾註	一切	悉皆	所有諸毒不能爲害
無垢	疾	花花	○	○	正文	○	俱時	而於彼人毒不能害
資福	疾	華華	○	○	正文	○	俱時	而於彼人毒不能害
磧砂	疾	華華	○	○	正文	○	俱時	而於彼人毒不能害
永南	疾	華華	○	○	正文	○	俱時	而於彼人毒不能害
徑山	疾	華華	○	○	正文	○	俱時	而於彼人毒不能害
清藏	疾	華華	○	○	正文	○	俱時	而於彼人毒不能害
本文	乾枯癩病*	*花四上角安畫瓶蓮	跋陀羅補那跋陀	若誦*滿六千遍當得普賢地	鉢盛*香*華*水*粳*米*置於壇上	聞塔鈴聲消諸一切惡業	六波羅密悉皆成滿是則	皆得消除所有諸毒不能爲害*

百六輯(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999). p.529).

둘째는 위에 나열된 것 가운데 ‘3. 1992년 中國의 內蒙古 慶州白塔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遼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문자이동 상태가 百萬塔陀羅尼 이후 高麗再雕大藏經 이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柳富鉉, “遼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研究”, 『書誌學研究』第20輯(書誌學會, 2000). p.16).

〈表 2〉“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2”

類型	B	B	B	B	B	B	B	C	D
項次	6	9	10	20	21	22	35	8	11
面 行 字	77下 3 6	77下 10 1-3	77下 20 12	80下 13 11	80下 22 5	81上 16 10	82中 9 8	77下 6 7	78中 8,9 夾註
敦煌	○	向佛白言	普	○	○	○	○	尙	夾註
房山	泥	白佛言	遍	就	誦	河	天	常	夾註
趙城	泥	白佛言	遍	就	誦	河	天	常	夾註
高麗	泥	白佛言	遍	就	誦	河	天	尙	夾註
無垢	○	向佛白言	普	○	○	○	○	尙	夾註
資福	○	向佛白言	普	○	○	○	○	尙	夾註
磧砂	○	向佛白言	普	○	○	○	○	尙	正文
永南	○	向佛白言	普	○	○	○	○	尙	正文
徑山	○	向佛白言	普	○	○	○	○	尙	正文
清藏	○	向佛白言	普	○	○	○	○	尙	正文
本文	或造小泥* 塔	合掌佛* 白言* 世尊	放大光明遍* 照三千大千世	便得此呪根本法成就*	若誦* 滿七千遍當得初地	恒河* 沙諸佛	天摩醯首羅及天龍八部	尙* 不聞地獄之聲	形所 載謂 形輪 月形 字金 形剛 蓮杵 花形 形蠡 花四 上角 安畫 瓶蓮

〈表 2〉“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3”

類型	E	E	F	F	G	G	G	G
項次	15	32	16	34	24	30	31	33
面 行 字	79中 20 10	82上 22 4	79下 6 7	82中 7 1-2	81中 22 7	82上 20 7	82上 21 13	82中 4 4
敦煌	○	常	界	無閒	其	○	趣	衛
房山	○	常	界	無閒	其	○	趣	衛
趙城	而	當	界	無閒	此	生	道	護
高麗	○	常	界	無閒	此	生	道	護
無垢	○	常	界	無閒	其	○	趣	衛
資福	○	常	界	無閒	其	○	趣	衛
磧砂	○	常	界	無閒	其	○	趣	衛
永南	○	常	世界	無閒業	其	○	趣	衛
徑山	○	常	界	無閒	其	○	趣	衛
清藏	○	常	界	無閒	其	○	趣	衛
本文	或用甄石○* 應先呪滿	常* 憶宿命至不退轉	生極樂界*	離五無閒*	皆至此* 處加持彼塔	令往來衆生* 下至鳥獸	及諸惡道* 生諸天宮	應當守護住持擁護*

〈表 2〉“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4”

類型	H	H	H	I
項次	18	19	26	28
面 行 字	80上 17 11	80上 20 12	81下 22 4-8	82上 3 5
敦煌	莊	說	法而受持者	大
房山	莊	說	法而受持者	大
趙城	莊	說	法而受持者	大
高麗	莊	說	法而受持者	大
無垢	所	以	作已	大
資福	所	以	作已	大
磧砂	莊	說	法而受持者	人
永南	莊	說	法而受持者	人
徑山	莊	說	法而受持者	大
清藏	莊	說	法而受持者	大
本文	以佛莊* 嚴而莊嚴之愛樂法	世尊說* 此一切衆生	若依此法* 而受持者* 六波羅密	皆以諸天大* 供養

〈表 2〉“文字異同 類型別 對校表 5”

類型	J	J	J	J	J	J	J
項次	1	2	3	4	7	12	14
面 行 字	77上 2 譯者	77上 6 12	77上 8 4	77上 19 9	77下 4 11-14	78中 8 左4	78下 8 4
敦煌	△	主	慧	惱	命將欲盡者	月	○
房山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	主	意	怖	命將盡者	月	一
趙城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	主	意	怖	命將盡者	月	一
高麗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	主	意	怖	命將盡者	月	○
無垢	△	△	△	△	△	△	△
資福	大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將盡之命	田	○
磧砂	大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將盡之命	卍	○
永南	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將盡之命	卍	○
徑山	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王	慧	惱	將盡之命	卍	○
清藏	唐天竺沙門彌陀山等譯	主	慧	惱	將盡之命	卍	○
本文		金剛主* 菩薩	無盡意* 菩薩	憂怖* 之事		形所 載謂 形輪 *月形 字金 形剛 蓮杵 花形 形蠶	或禮 ○*

- 1) 類型 A : [敦煌][房山][趙城][高麗]가 同一하고 [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이 同一한 文字異同 : 第5, 13, 17, 21, 23, 25, 27, 29項等 8個項
- 2) 類型 B : [房山][趙城][高麗]가 同一하고 [敦煌][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이 同一한 文字異同 : 第6, 9, 10, 20, 21, 22, 35項等 7個項
- 3) 類型 C : [房山][趙城]이 同一하고 [敦煌][高麗][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이 同一한 文字異同 : 第8項 1個項
- 4) 類型 D : [敦煌][房山][趙城][高麗][無垢][資福]이 同一하고 [磧砂][永南][徑山][清藏]이 同一한 文字異同 : 第11項 1個項
- 5) 類型 E : [趙城]만의 文字異同 : 第15, 32項等 2個項
- 6) 類型 F : [永南]만의 文字異同 : 第16, 34項等 2個項
- 7) 類型 G : [趙城][高麗]가 同一하고 [敦煌][房山][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이 同一한 文字異同 : 第24, 30, 31, 33項等 4個項
- 8) 類型 H : [無垢][資福]이 同一하고 [敦煌][房山][趙城][高麗][磧砂][永南][徑山][清藏]이 同一한 文字異同 : 第18, 19, 26項等 3個項
- 9) 類型 I : [磧砂][永南]이 同一하고 [敦煌][房山][趙城][高麗][無垢][資福][徑山][清藏]이 同一한 文字異同 : 第28項 1個項
- 10) 類型 J : [無垢]의 缺失 때문에 類型을 나눌수 없는 것 : 第1, 2, 3, 4, 7, 12, 14項等 7個項

위와 같이 10個의 類型으로 분석된 35個項의 문자이동의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類型 A’와 ‘類型 B’를 통해 볼 때 [敦煌]과 [房山·趙城·高麗] 그리고 [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이 각각의 系統群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類型 G’를 통해 볼 때 [趙城]과 [高麗]가 매우 가까운 계통군에 속해 있다.

셋째, ‘類型 H’를 통해 볼 때 [無垢]와 [資福]이 매우 가까운 계통군에 속해 있다.

위에서 밝힌 사실을 포함한 10個의 유형에서 우리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원문은 현존본 가운데 [敦煌]의 원문이 가장 이른 시기의 원문상태이며, 이것은 [房山·趙城·高麗]에 와서 한번 변화되었고, 다시 [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에서 크게 변화되었음을 看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無垢]의 문자이동 상태는 <表 2> “文字異同 對校表 2”에 보이듯이 [資福]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無垢]의 저본과 계통은 [資福]의 저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① [敦煌]의 원문은 현존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있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원문상태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敦煌]의 원문이 770年頃에 간행된 日本의 百萬塔陀羅尼(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수록된 6個의 다라니 가운데 根本·相輪·自心印·六度陀羅尼 등 4個

의 陀羅尼로 구성된 것임) 보다도 이전의 문자이동의 상태인 것¹²⁾으로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

② [房山][趙城][高麗]에 와서 원문이 한번 변화되었다. 이것은 우리들이 주지하듯이 [房山][趙城][高麗]는 모두『開寶藏』의 영향을 받은 것(특히 『趙城金藏』과 『高麗藏』은 전체적으로『開寶藏』의 覆刻本이다)으로서 이들의 변화는『開寶藏』에서 발생된 문자이동을 인습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에서 원문이 다시 크게 변화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資福藏』에는 자체에서 발생된 문자이동과 『崇寧藏』(1080-1103)에서 발생된 문자이동을 인습한 것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¹³⁾ [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에서의 변화는『崇寧藏』과 [資福]에서 발생된 문자이동이 이후의 大藏經에 수용된 것으로 推定된다.

④ [無垢]의 저본과 계통이 [資福]의 저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無垢]에서 나타난 原文의 문자이동이 [資福]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때 [無垢]의 底本은 [資福]이나 『崇寧藏』의 저본과 동일한 계통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IV. 結 言

하나의 문헌이 처음으로 성립된 이후 수없이 轉寫되거나 중간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문의 변화 즉 문자이동은 일정한 유형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자이동의 유형은 그 문헌에 있어서 전승층위와 원문의 변화추이 및 계통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현존본 사이에서 형성된 문자이동의 유형을 고찰하여 한국의 경주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문자이동 상태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현존본을 조사하여 대교하였다. 다음으로는 현존본의 대교를 통해 밝혀진 문자이동을 유형별로 고찰하여 현존본 원문의 변화추이를 구명하고, [無垢]에서 나타난 문자이동의 상태를 가지고 [無垢]의 저본과 계통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원문은 [敦煌]이 현존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原文 상태이며, 이것은 [房山·趙城·高麗]에 와서 한번 변화되었고, 다시 [無垢·資福·磧砂·永南·徑山·清藏]에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無垢]의 문자이동 상태는

12)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研究”, 《東方學志》第壹百六輯(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999), p.523.

13) 이 같은 事實은 筆者가 北京大學에 收藏되어 있는『崇寧藏』인 「大方廣佛華嚴經修慈分」, 「阿毗達磨順正理論」卷第二十三, 「辨正論」卷第二의 實查를 통해서 確認되었다.

[資福]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無垢]의 저본과 계통은 [資福]의 저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參考文獻

- 黃永武編, 『敦煌寶藏』 第105·106冊. 新門豐出版公司. 1981.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20冊. 1984.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1990.
潘吉星, “韓國新發現的印本陀羅尼經與中國武周時的雕版印刷物”, 《中國印刷史學術研討會文集》. 印刷工業出版社. 1996.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4輯. 書誌學會, 1997.
張秀民, 『中國印刷史』. 上海人民出版社, 1989.
肖東發, “漢文大藏經의 刻印及雕版印刷術의 發展”, 《北京大學百年國學文粹》 - 語言文獻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
柳富鉉, “童蒙先習 異本의 文字異同 研究”, 《書誌學研究》 第15輯, 書誌學會, 1998.
柳富鉉,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時期에 관한 研究”, 《東方學志》 第壹百六輯,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999.
柳富鉉, “遼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研究”, 《書誌學研究》 第20輯, 書誌學會, 2000.

〈對校表의 說明〉

- 1) ‘類型’ : 諸本 사이에 나타난 文字異同의 類型
- 2) ‘項次’ : 文字異同의 羅列 順番
- 3) ‘面行字’ : 『高麗大藏經』12冊의 面, 行, 字
- 4) ‘*’ : 本文 가운데 對校의 對象이 되는 文字
- 5) ‘○’ : 該當 文字가 없는 것
- 6) ‘△’ : 該當 文字가 毀損이나 缺落되어 認識할 수 없음